

오늘의 날씨

음력 2월 25일

일출 6:39AM 일몰 7:21PM

플러스

2일(토)	3일(일)	4일(월)
화씨 59/37	44/34	52/33
섭씨 15/3	7/1	11/1

포트리

2일(토)	3일(일)	4일(월)
화씨 60/35	43/32	53/31
섭씨 16/2	6/0	12/-1

뉴헤이븐

2일(토)	3일(일)	4일(월)
화씨 57/34	41/29	47/30
섭씨 14/1	5/-2	8/-1

필라델피아

2일(토)	3일(일)	4일(월)
화씨 61/36	46/33	62/34
섭씨 16/2	8/1	17/1

뉴스 속으로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 파장은

뉴욕시 스몰비즈니스 업주들 '발등의 불'

올해 12월 31일부터 시간당 11불로 올라

롱아일랜드·업스테이트는 다소 느리게 추진

뉴욕주 최저임금 15달러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2016~2017회계연도 주 예산안 마감 시한을 단 3시간 앞둔 31일 오후 9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주의회는 밤새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적극적으로 예산안에 합의했다. 예산안에는 협상 테이블의 최대 이슈, 주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이 결국 주지사의 뜻대로 포함됐다.

문제는 인상 속도였다. 쿠오모 주지사는 당초 뉴욕시는 오는 2018년까지, 나머지 지역은 2021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롱아일랜드와 업스테이트 지역 주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했다.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 업체에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주지사는 결국 주의회 의원들의 조

금 봐주며 롱아일랜드와 웨스트체스터 지역 최저임금은 매년 1달러씩 단계적 인상, 2021년 12월 31일을 기해 시간당 15달러로 조금 느리게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뉴욕시를 제외한 나머지 업스테이트 지역은 향후 5년간 매년 70센트씩 인상, 2020년 12월 31일까지 12.50달러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오는 2019년부터 진행할 연간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경제영향평가 분석 결과에 따라 인상 시기와 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주 전역 최저임금이 결국엔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저임금 인상 파장이 가장 클 지역은 뉴욕시다. 직원 11명 이상 규모의 뉴욕시 업체의 최저임금은 올해 12월 31일을 기해 시간당 11달러, 2017년 12월 31일부터는 13달러,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부터

뉴욕주 법정 최저임금 언제, 얼마나 오르나 (단위: 달러/시간*)

시기	뉴욕시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기타 지역
	직원 11명 이상	직원 10명 이하		
12/31/2016	11.00	10.50	10.00	9.70
12/31/2017	13.00	12.00	11.00	10.40
12/31/2018	15.00	13.50	12.00	11.10
12/31/2019		15.00	13.00	11.80
12/31/2020			14.00	12.50**
12/31/2021			15.00	

자료 = 뉴욕주지사실, *현행 최저임금은 9달러 **추후 인상 시기는 별도로 정함

는 15달러로 인상된다. 직원 10명 이하 업체는 2019년 12월 31일을 기해 15달러로 인상돼 다소 느린 속도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한인 업체를 포함한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에 특히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22만 개 비즈니스 가운데 95% 이상이 직원 50명 이하 업체다. 뉴욕시에서 가장 먼저 최저임금 15달러를 지급해야 할 직원 11명 이상 업체는 4만9473곳에 달한다.

일부 정책 분석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빈부격차 문제를 부각시키는 정치적 도구로만 작동할 뿐 가

뜩이나 낮은 소득 인상을 더 낮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에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고용을 축소하게 되면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뉴욕주에서도 최저임금 15달러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파장은 전국으로 번질 전망이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주가 최저임금 인상 방안을 추진했던 지난 2013년 이후 전국 14개 주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뉴저지주의회에도 최근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이조은 기자

독자 제보 바랍니다

중앙일보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718-361-7700(교환 125), 팩스: 718-937-1654, 이메일: lee.hyunsang1@koreadaily.com

중앙일보

43-27 36th St., L.I.C., NY 11101

THE KOREA DAILY(USPS 682-890)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holidays for \$20 per month by The Korea Central Daily News, Inc. 43-27 36th St., L.I.C., NY 11101. Periodical postage paid at Long Island City, N.Y. and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CENTRAL DAILY NEWS, INC., 43-27 36th St., L.I.C., NY 11101.

자연사박물관 한국 유물 첫 공개

수장고 보관 전 디렉터 수집품

오는 25일 프라이빗 전시 개최

맨해튼의 자연사박물관 수장고에서 잠자던 한국 유물이 한 세기를 지나 관람객을 맞이한다.

100여년 전 자연사박물관 디렉터였던 로이 챔펜 앤드류가 지금의 북한과 남한을 다니며 촬영한 사진 수백 장과 당시 서울의 모습을 담은 12분짜리 비디오 등 박물관이 소장하게 된 수천 점의 유물 중 다양한 종류의 모자와 활, 화살통 등 사냥 무기들을 오는 25일 하루 40여 명의 관람객들에게 오전 10시부터 제한적으로 선보이는 프라이빗 전시

를 개최하는 것. 몇몇 사진들은 30년 전 전시된 적이 있지만 모자와 무기 등의 유물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연사박물관이 이번 프라이빗 전시를 개최하기까지 수년간 자연사박물관 측에 한국 유물 그룹 관리를 허용을 요청해 온 코리아아트소사이어티는 이번 전시가 단지 100년 전 한국의 예술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당시의 생활양식과 문화 등 전반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로버트 톨리 코리아아트소사이어티 회장은 1일 본지와 통화에서 "온라인으로 구하게 된 내셔널지오그래픽 1919년 7월호에서 1900년대 초반 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수천 점의 한국 유물 중 당시의 화귀 모자들도 대거 소개된다.



100년 전 한국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 자료들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코리아아트소사이어티 제공]

국의 모습과 사람들을 찍은 사진을 발견했는데 그게 앤드류가 찍은 사진이었고 기록을 찾아보니 자연사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인으로 시작해 디렉터까지 된 인물이었다"며 "더 많은 유물이 있을 것이라 여겨 박물관 측에 다른 한국 유물들의 공개와 전시를 요청한 게 7년쯤 전이었다. 공개하겠다는 말만 하고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다 이번에 처음으로 프라이빗 전시가 허용됐다"고 말했다.

이번 프라이빗 전시 관람을 위해서는 2일까지 코리아아트소사이어티에 이메일 (robert@koreanart-society.org) 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황주영 기자

마지막 정성...

중앙 MEMORIAL 장의사

Toll Free: 888-353-2424

미주 최초의 한인공인 장의사,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고인에 대한 사랑, 정성, 예의를 중앙 장의사의 약속입니다.

하봉호 F.D.Lic No: NY 1502, NJ 4569, 안재환 F.D.Lic No: NY 1501, NJ 4914

뉴욕 | 718-353-2424 뉴저지 | 201-945-2009

"한국 가세요"

예쁜 가격. 워커힐 여행사와 함께...

아시안항공 **7** 인기 어려운 **4월** 출발요금.

2016년 여름 특가세일
학생 및 시니어 특별 우대

고국 관광 패키지 | 서틀버스 서비스 (뉴저지/필라델피아) | 대형 버스 대여

201-346-1166, 718-749-3059, 212-221-1234 대표: 이젬마

바이오 실키 베개

숙면 도와주는 기능성 명품 **인체 구조 맞춰 경추 보호**
한국서 개발·제작 미 수출

바이오 실키(SILKY)베개 특징

- 메모리폼과 라텍스베개를 발전시킨 바이오 베개
- 바이오 소재(은, 게르마늄, 토르마린, 피톤치드) 함유
- 실크처럼 부드러운 촉감과 탄성
- 항균, 음이온, 원적외선 방출
- 일자목을 C자 아치형으로 교정
- 식물성 천연향을 마이크로 캡슐로 함유
- 머리 땀 냄새 감소와 두피건강에 도움

바이오 기능(Bio Effect)

*** 음이온 효능**

- 공기정화 작용/오염물질 제거
- 먼지 제거 및 살균 작용
- 혈액의 정화 작용으로 성인병과 알레르기 증상에 도움
- 세포 활성 작용
- 피로회복, 체력회복, 통증완화

*** 원적외선의 효능**

- 인체의 혈액순환 촉진, 체내 중금속을 배출, 탈취, 정화, 해독의 효과
- 세균이나 곰팡이 서식 방지, 식물성장을 촉진하고 활성화, 오염된 공기를 정화, 신진대사를 촉진

Bio Silky (중형) \$60
500x290x90(mm)

(소형) \$50
460x240x90(mm)

올바른 베개 선택이 올바른 수면 자세를 만듭니다!!
Selecting a right pillow makes a proper sleeping posture.

바이오 실키 베개 사용으로 올바른 C자형 경추가 유지된 상태 | 높은 베개 사용으로 인한 일자목

(주)신앙테크에서 개발한 "바이오 실키 베개"를 편안한 숙면을 제공하는 건강베개로 적극 추천합니다. - 정명섭 한의학 박사

한국 우량 제품 할인 판매 SHOPPING **온라인: www.korearo.com 전화: 347-396-3015**